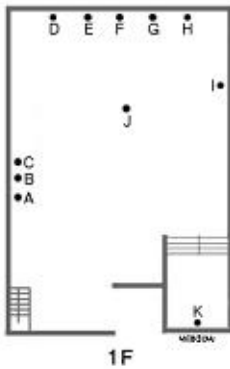


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 강홍구 개인전

2009. 3. 13. - 5. 3.
몽인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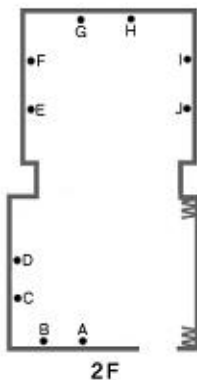
작가 강홍구의 개인전 <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이 2009년 3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몽인아트센터에서 마련된다.

2001년 새로 이사한 동네를 산보하듯 둘러보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진 작업들은 작가 강홍구의 의지와는 별개로 어떤 우연한 마주침들의 기록으로 발전되었고, 마침내 <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이라는 전시의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작가 자신의 일상을 이루는 주변지역을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가볍게 관망하던 그의 '기록 아닌 기록' 작업은 2002년 발표된 '뉴타운 시범사업 선정 계획'으로 인해 새로운 맥락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강홍구의 작업은 도시화의 필연적 과정, 혹은 개발열풍에 대한 다큐멘터리적 기록에 집중하여 현실의 모순에 대한 작가 자신의 입장을 맥락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느 순간 작가 개인의 일상에 개입해버린 폭력적 풍경을 바라보며 사라져가는 것들, 혹은 이제는 사라진 것들에 대한 기억과 향수를 따라가는 형식을 취한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걷는' 속도로 찍힌 풍경을 '걷는' 속도로 바라보며 읽어내는 과정에서 관람객은 '의도하지 않았던 또 다른 현실의 기록' 속에서 자신이 위치하는 지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1층】

- A. 강홍구, <빨래>, 2009, Digital photo & print, 107x125cm
- B. 강홍구, <물놀이>, 2009, Digital photo & print, 107x125cm
- C. 강홍구, <유리병>, 2009, Digital photo & print, 107x125cm
- D. 강홍구, <내 집 사랑>, 2009, Digital photo & print, 100x200cm
- E. 강홍구, <안개>, 2009, Digital photo & print, 100x200cm
- F. 강홍구, <논산집>, 2009, Digital photo & print, 100x200cm
- G. 강홍구, <철거>, 2009, Digital photo & print, 100x200cm
- H. 강홍구, <원두막>, 2009, Digital photo & print, 100x200cm
- I. 강홍구, <화단>, 2009, Digital photo & print, 100x200cm
- J. 강홍구, <은평 뉴타운 안내도>, 2009, Drawing, (각) 90x112cm
- K. 강홍구, <은평 뉴타운 연대기>, 2009, Slide show, 26min.



【2층】

- A. 강홍구, <살구나무>, 2009, Digital photo & print, 107x125cm
- B. 강홍구, <소나무>, 2009, Digital photo & print, 107x125cm
- C. 강홍구, <노란 꽃>, 2009, Digital photo & print, 107x125cm
- D. 강홍구, <태극기>, 2009, Digital photo & print, 107x125cm
- E. 강홍구, <폭포동>, 2009, Digital photo & print, 90x220cm
- F. 강홍구, <한양주택>, 2009, Digital photo & print, 90x220cm
- G. 강홍구, <계단>, 2009, Digital photo & print, 90x220cm
- H. 강홍구, <나무>, 2009, Digital photo & print, 90x220cm
- I. 강홍구, <중장비들>, 2009, Digital photo & print, 90x220cm
- J. 강홍구, <흰 개>, 2009, Digital photo & print, 90x220cm

또 다른 현실의 기록

스캐너를 이용한 디지털 합성사진을 선보였던 강홍구의 1990년대 작업들은 어떤 의미에서든 그의 입장을 드러내는데 있어 상당히 노골적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1996-1997)와 <도망자> 시리즈(1996)가 그랬고, <행복한 우리 집> 시리즈(1997)가 그러했으며, <전쟁공포> 시리즈(1997-1998) 역시 이러한 의도를 일말의 오해도 없이 풀어냈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풍경이 등장하기 시작한 그의 화면은 좀 더 현실의 모습에 다가선 때문인지, 합성과 연출로 인해 드러나던 작가의 목소리보다는 사진, 더 정확하게는 현실의 풍경 그 자체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로 관람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동시에,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듯한 강홍구의 태도는 그의 초기 작업에 익숙한 관람자에게는 다소 낯선 느낌으로 다가온다. 다시 말해, <그린벨트> 시리즈(1999-2001)와 <오쇠리 풍경> 시리즈(2004) 등 일련의 풍경 시리즈는 작업 방식과 대상의 변화와 더불어 작가의 태도, 작가와 대상의 관계 혹은 거리 두기 등에 있어 변화를 드러내며 다소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려 하는 듯이 보인다.

은평 뉴타운 지역을 찍은 작업들 역시 이러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2001년 새로 이사한 동네를

산보하듯 둘러보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진 작업들은 작가의 의지와는 별개로 어떤 우연한 마주침들의 기록으로 발전되었고, 마침내 <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이라는 전시의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작가 자신의 일상을 이루는 주변지역을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가볍게 관망하던 그의 작업은 2002년 발표된 '뉴타운 시범사업 선정 계획'으로 인해 새로운 맥락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강홍구는 도시화의 필연적 과정, 혹은 개발 열풍에 대한 다큐멘터리적 기록에 집중하여 현실의 모순에 대한 작가 자신의 입장을 맥락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느 순간 작가 개인의 일상에 개입해버린 폭력적 풍경을 바라보며 사라져가는 것들, 혹은 이제는 사라진 것들에 대한 기억과 향수를 뒤쫓는 방식을 택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과 향수는 은평 뉴타운 개발 과정을 디지털 카메라로 포착하고 길게 이어 붙여 재구성한 풍경 사진과 개발의 과정을 400여장의 슬라이드 쇼로 돌아보는 <은평 뉴타운 연대기>,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지나간 자리를 사적(私的)인 기억에 의존해 따라가는 <은평 뉴타운 안내도> 위로 펼쳐진다.

작가의 언급을 엄두에 둔다면, 이 작업은 뉴타운과 재개발을 둘러싼 상황을 포착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다큐멘터리의 맥락을 비껴가고 있다. 즉, 은평 뉴타운 주변의 맥락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다큐멘터를 구성하기 보다는 사소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거 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는 화단의 꽃, 그리고 나무와 유기체는 제일 마지막까지 잔존하고 재개발과 더불어 가장 먼저 자리잡는 전신주나 길과 대비되며 작가의 시선을 잡아둔다. 하찮은 것으로 취급 당하며 뿌리 뽑힌 이 모든 대상들은 사라져간 것들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그들이 존재했음을 증언하는 풍경 위로 어딘지 모르게 주저하는 듯한 작가의 감정을 실어낸다. 이러한 작가의 태도는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의 속도에서 한번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유사하게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오쇠리 풍경> 시리즈의 경우,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다소 급박한 호흡을 자아내는데, 이것은 순식간에 폭력적으로 일상에 개입해버리는 철거와 재개발의 속성이 숨가쁜 흐름 속에서 증폭되어 화면 위에 현실화된 때문이다. 그러나 은평 뉴타운의 풍경은 이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을 걷는 속도로 잡아낸 다소 긴 호흡의 이 풍경 사진들에서는 결코 객관화될 수 없는 작가의 심리상태가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폐허가 된 풍경 앞에 벌거벗은 현실을 두고 가까이 다가서지도, 외면하지도 못하는 작가는 그 압도적인 현실을 그저 '풍경'으로 바라보기로 마음먹는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작업의 대상을 직시하기 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혹은 비껴 서서 결눈질하듯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러한 작업을 결국 과거 속의 현실일 뿐이며, 과거이면서 동시에 실재인 어떤 것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이며, '기록 아닌 기록'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홍구가 사진의 표면으로 끄집어낸 기억과 향수의 밑바닥에는 그가 바라왔던 그 대상들 하나하나를 목격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인식한 자만이 감지할 수 있는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고민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낙담한 듯, 포기한 듯 느껴지는 그 미묘한 감정의 상태가, 그 어떤 연출보다도 강력하게 상황을 맥락화하는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는 작가의 어찌할 수 없음이 현실의 모습을 오히려 더 예리하게 드러낸 까닭이다. 결국, 그의 작업은 재개발을 둘러싼 첨예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 즉 무엇이 사라지는지, 무엇이 이러한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지, 결국에 누가 이것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를 여전히 남겨준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한 듯 보이는 강홍구의 태도와 작업 앞에서도 여전히 힘겨운 현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인지 모른다.

김윤경(몽인아트센터 디렉터)

작가소개

1956년 전라남도 신안에서 출생한 강홍구는 목포교육대학(1976), 홍익대학교 서양화과(1988) 및 동대학원(1990)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1992년 갤러리 사각(서울)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위치, 속물, 가짜>(금호미술관, 서울; 갤러리 그림시, 수원, 1999), <한강시민공원>(요스카 뉴잉글, 도쿄, 2002), <드라마 세트>(대안공간 풀, 서울, 2003), <오쇠리 풍경>(갤러리 숲, 서울, 2004), <풍경과 놀다>(로댕갤러리, 서울, 2006), <어의도 가는 길>(프로젝트 스페이스 칸다다, 도쿄, 일본, 2006) 등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고, <Emotional Factor+y>(영은미술관, 광주, 경기도, 2008), <Daily Life in Korea: 한국 태국 수교 50주년 기념전>(퀸즈갤러리, 방콕, 태국, 2008),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8>(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8), <나침반의 끝>(멕시코 시티, 멕시코; 아바나, 쿠바, 2008), <번역에 저항한다>(토탈미술관, 서울, 2007) 등 단체전과 광주비엔날레(2000, 2002), 부산비엔날레(2002), 미디어시티서울(2002) 등의 국제적 미술행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작업을 선보여왔다. 2006년에 "올해의 예술가상(시각부문, 문예진흥위원회)"을, 2008년에 "동강 사진예술상(동강 사진 위원회)"을 수상했다.

몽인아트센터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06 (110-230)

T 02-736-1446~8

F 02-736-1449

www.mongin.org

11:00-18:00, 월요일 휴관